

행정학에서 재난관리분야의 학문적 연구경향

Trends of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안혜원*, 류상일**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Hye-Won Ahn(heywon8151@cbnu.ac.kr)*, Sang-Il Ryu(ryusangil@cbnu.ac.kr)**

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행정학 연구가 전개되어 온 과정에서 재난관리 분야의 연구경향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재난관리 연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학문적 발전을 위한 재난관리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동안의 재난관리 분야의 연구경향을 살펴본 결과, 첫째, 시대별 변화추이에서 2000년도 이후의 재난관리 분야 연구 논문이 전체의 81.8%를 차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연구 방법적인 면에 있어 사례연구가 47.7%를 차지함으로써 사례연구에 치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연구목적의 경우 정책대안의 제시 논문이 79.5%로 가장 많았으며, 이론검증의 경우 13.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학문적 기반 형성을 위해서는 이론의 정립 및 검증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넷째, 재난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2001년 이후, 사회적 재난 및 사회적·인적·자연적 재난의 복합적인 연구가 각각 27.3%, 50%로써 매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정책대상별로 살펴보았을 때 중앙·지방정부·민간부문 및 NGO 등의 통합적 재난관리 운영에 대한 연구가 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단계별 변화추이에서는 사전전략(예방·준비), 사후전략(대응·복구) 전 과정에 있어서의 연구가 56.8%로 가장 많으며, 단계적 구분에 있어서는 사후전략에 더욱 치우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중심어 : | 재난관리 | 위기관리 | 연구경향 |

Abstract

This study aim is to investigate disaster management actual in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establish object of disaster management study by surveying the trends of disaster management for development of disaster management.

This study has examined the trends in researches on disaster management that have been done so far. First, their changes have been investigated by years and it was found out that the studies on disaster management accounted for 81.8% after the year of 2000. Second, case studies accounted for 47.7%, with respect to the method for research, which means researchers lay emphasis on case studies. Third, the studies that aim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were found the highest with 79.5%, in regard of research objectives, and the studies on verification of theories with 13.6%, which means that more efforts need to be made on theorization and verification continuously to lay the groundwork for studying disaster management. Fourth, the studies have been examined by type of disaster and it was found out that since 2001, the studies on social disasters and comprehensive studies on social, man-made and natural disasters have increased by 27.3% and 50% respectively. Fifth, studies have been examined by administrative units and it was found out that the studies on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private sector and NGO's disaster management accounted for the highest percentage with 50%. Lastly, the studies on preliminary strategies(mitigation & prepaedness) and post-strategies(response & recovery) accounted for the highest percentage, 56.8%, with respect to disaster management steps, and it was shown that studies are being made preponderantly on post-strategies.

■ keyword : | Disaster Management | Crisis Management | Tendency of Research |

I. 서론

현대사회는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위재난과 자연재해의 규모와 성격이 대형화, 복잡·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동남아의 쓰나미, 터키와 대만의 지진, 미국 9·11테러 사건, 북한 용천 폭발사고, 우리나라의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및 지하철 방화사건 등 우리나라도 인위재난이든 자연재해든 대형 재해·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가적 위기관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그 동안 우리나라의 위기관리는 실무적 차원에서의 활동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학계의 연구는 제한적이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국가위기관리는 개념에 대해서도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학계의 논의도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고, 따라서 재난관리에 대한 연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1]. 그러나 사회적·인적·자연적 재난에 보다 본질적·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무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학문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한 이론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필요성으로 현재 제한적이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 관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난의 성격상 다양한 학문 분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대로 재난이라는 것의 복잡·다양함과 그 거대한 규모로 인하여 국가적 위기를 초래, 국가 핵심기반을 위협할 수 있는 경향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는 무엇보다도 국가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행정학적 관점에서의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행정학 연구가 전개되어 온 과정에서 재난관리 분야의 연구경향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재난관리 연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학문적 발전을 위한 재난관리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재난관리 연구경향을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연구결과물을 분석하는 것이 재난관리

학문의 성격과 경향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 학회지를 대상으로 하여 이론적·개념적 수준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자료에 대한 조작화·계량화에 의한 실증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I. 행정학에서 재난관리분야의 학문적 연구영역

1. 재난관리 학문분야의 다양성

그 동안 재난관리에 대한 논의는 각각의 학문분야별로 흩어져서 논의되어 오기는 했지만 학술적 차원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재난관리에 있어 재난의 범위는 전통적 안보위기로 인한 재난,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국가핵심기반의 위기로 인한 재난 등이 모두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동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정부의 일상적 기능만으로는 수습·복구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비상적 기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재난관리를 연구함에 있어 대상 학문 분야는 특정 학문에 국한될 수 없으며, 인문·사회과학은 물론 자연과학, 공학, 의학 등의 제학문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문학, 법학, 행정학,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 토목공학, 화학, 물리학, 종교학, 의학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것이다[2]. 그러나 결국 이들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조정하여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직화·체계화하는 것은 행정이기에 무엇보다도 행정학에서의 재난관리 학문의 연구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행정학에서 재난관리분야의 학문적 입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행정학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수차례 있어 왔으며, 1986년 안병만, 1992년 김인철, 1992년 이양수, 1994년 이영균, 1995년 김병섭, 1995년 하태권, 1996년 권경득, 1996년 박통희, 1996년 유민봉, 1996년 이승중,

1998년 김태일·서주현, 2001년 노화준·황혜신, 2002년 목진휴·박순애, 2002년 이병렬·박기관, 2002년 이재은 등이 있다[3]. 이러한 행정학 관련 연구경향 분석의 선행연구들 중에서는 행정학 분야 전반에 걸친 연구경향을 분석한 논문도 있으며, 정책학, 조직이론, 인사행정론, 지방행정(자치)론 분야와 같이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경향을 분석 논문도 있다. 그러나 행정학에서 재난관리 분야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경향 분석을 실시한 논문은 없는 실정이다. 다만, 이재은 교수에 의해 '국가위기관리의 학문적 체계화의 의의와 필요성' 정도가 논의되어 왔을 뿐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그 동안의 재난관리분야의 연구경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분석대상 논문의 선정과 조사기준

본 연구에서는 등재 후보 이상의 학회지 한국행정학보[4][8], 한국정책학회보[9], 지방정부연구[10][14], 행정논총[15][17], 현대사회와 행정연구[18][20]에 실린 그 동안의 재난관리 분야의 논문을 그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5개 등재 후보 이상의 학회지에서 재난관리 분야의 논문을 검토한 결과,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난 2005년 창간된 한국위기관리논집[21][47]에 실린 재난관리 분야 논문들을 분석대상에 추가하였다. 행정논총은 1963년 창간되어, 2006년 말 현재 총 44권이 발행되었으며, 한국행정학보는 1967년에 창간되어, 2006년 말 현재 총 40권이 발행되었다. 현대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지방정부연구는 1990년, 1992년, 1997년 창간되어 2006년 말 현재 각각 총 17권, 15권, 10권이 발행되었다. 또한 위기관리논집은 2005년 창간, 현재 총 2권이 발행되었다. 따라서 위기관리논집을 예외로 하여 이들 논집이 공통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1991년 이후 발간된 논집의 일반논문 총44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행정학 분야에서 재난관리의 연구경향 분석을 위해 각 논문들을 실증적 방법으로 이용하였다. 분석의 기준은 기존 행정학 분야의 선행연구들과의 비교가능성, 분석의 적실성, 분석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분석을 위한 분류기준의 설정을 위해 기존의 연구경향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들 가운데 실증적 방법을 활용한 논문을 위주로 검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재난관리 연구경향 분석을 위한 주요 분류기준을 ① 출판년도(5년 단위), ② 연구자 수, ③ 소속기관, ④ 직위, ⑤ 연구방법, ⑥ 연구목적, ⑦ 재난유형별, ⑧ 정책대상별, ⑨ 관리단계별로 설정하였다.

표 1. 재난관리 학문분야 연구경향 분석의 조사기준

구분	분류 기준	분류 내용
1	출판년도	1991~2005
2	논문게재시기 (5년 단위)	① 1991~1995 ② 1996~2000 ③ 2001~2005
3	연구자 수	① 단독 ② 2인 공동 ③ 3인 공동 ④ 4인 이상 공동
4	소속기관	① 대학 ② 연구소 ③ 정부기관 ④ 기타
5	직위	① 전임교수 ② 연구원 ③ 감사 ④ 공무원 ⑤ 기타
6	연구 방법	① 문헌분석 ② 설문조사 및 통계자료 분석 ③ 사례연구 ④ 기타
7	연구 목적	① 이론의 검증 또는 정립 ② 이론의 적용 ③ 정책대안의 제시
8	재난유형별	① 사회적 재난 ② 인적 재난 ③ 자연 재난
9	정책대상별	① 중앙정부 ② 지방정부 ③ 민간부문 및 NGO
10	관리단계별	① 예방 ② 준비 ③ 대응 ④ 복구

III. 재난관리분야의 학문적 연구경향 변화추이 분석

1. 시대별 변화추이

1991년 이후 주요 6개 학회지를 대상으로 하여 총44편의 재난관리분야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논문 게재시기를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1991년-1995년 사이 발간된 것이 4편이었고, 1996년-2000년 사이 발간된 것 역시 4편이었으며, 2001년 이후 발간된 논문이 무려 36편에 달하고 있다. 행정학에서 재난관리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은 2000년 들어 활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논문 게재 시기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1991-1995년	4	9.1
	1996-2000년	4	9.1
	2001-2006년	36	81.8
	합계	44	100.0

2. 연구자 변화추이

행정학에서 재난관리에 대한 연구자를 분석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이 단독 연구가 가장 많은 37편에 달하고 있었다. 이는 재난관리 분야의 연구자들이 한정되어 있어 인적교류나 인적 네트워크 확립이 미비해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표 3. 연구자 수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단독	37	84.1
	2인 공동	2	4.5
	3인 공동	2	4.5
	4인이상 공동	3	6.8
	합계	44	100.0

또한 소속기관을 보면 대학에 몸담고 있는 연구자가 65.9%로 가장 많았고, 연구소가 25.0%에 해당되었다. 이에 반해 정부기관과 기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는 9% 가량이어서 재난관리 분야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대학교 교수와 연구원 등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소속기관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대학	29	65.9
	연구소	11	25.0
	정부기관	2	4.5
	기타	2	4.5
	합계	44	100.0

다음으로 연구자들의 직위를 보면 전임교수가 61.4%, 연구원이 25.0%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강사와 공무원 및 기타 연구원들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연구기반이 갖추어진 연구자가 보다 활발한 연구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직위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전임교수	27	61.4
	연구원	11	25.0
	강사	1	2.3
	공무원	3	6.8
	기타	2	4.5
	합계	44	100.0

3. 연구 방법 추이

재난관리 분야 연구의 방법을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이 사례연구가 47.7%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다음으로 문헌분석과 설문 통계분석이 각각 22.7%와 20.5%였다. 이는 재난관리 분야 연구가 각 재난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로 사료된다.

표 6. 연구 방법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문헌분석	10	22.7
	설문조사 및 통계자료 분석	9	20.5
	사례연구	21	47.7
	기타	4	9.1
	합계	4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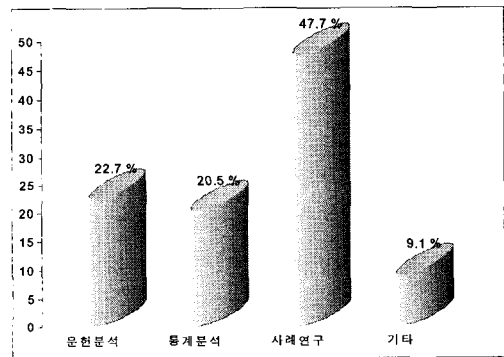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방법

4. 연구목적 추이

행정학 분야에서 재난관리 연구 경향은 이론의 검증과 이론의 적용보다는 정책대안 제시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책대안을 제시한 논문이 35편으로 79.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론의 검증이 13.6%였다.

표 7. 연구 목적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이론의 검증 또는 정립	6	13.6
	이론의 적용	1	2.3
	정책대안의 제시	35	79.5
	기타	2	4.5
	합계	44	100.0

5. 재난유형별 변화추이

재난유형은 혼합 재난이 가장 많은 22편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다음으로 사회적 재난이 12편, 인적 재난이 8편, 자연 재난이 2편이었다. 이는 재난관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인 2001년 이후 사회적 재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즉, 미국의 9.11 테러를 중심으로 하여 국내에서도 테러와 각종 파업과 조류독감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결과이다.

표 8. 재난 유형별과 논문 게재 시기와의 교차

구분	재난 유형별				전체
	사회적 재난	인적 재난	자연 재난	기타 (혼합)	
논문 게재 시기	1991-1995년	1	3		4
	1996-2000년	1	1		2
	2001-2006년	10	4	2	20
전체	12	8	2	22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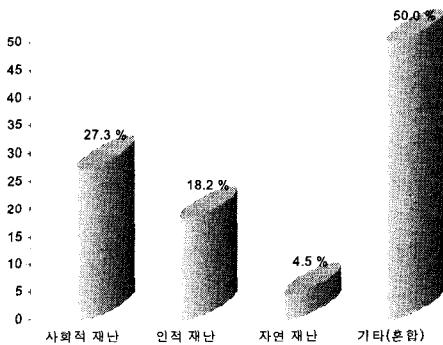


그림 2. 재난 유형별 연구

6. 정책대상별 변화추이

재난관리 분야 정책대상별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모든 정책 대상을 포괄하는 연구가 가장 많은 22편이 이루어졌고, 다음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관한 연구가 각각 13편과 7편이 이루어졌다.

표 9. 정책 대상별과 논문 게재 시기와의 교차

구분	논문 게재 시기			전체
	1991-1995년	1996-2000년	2001-2006년	
정책 대상별	중앙정부	3		10
	지방정부		2	5
	민간부문 및 NGO		1	1
	기타(혼합)	1	1	20
전체	4	4	36	44

카이제곱: 13.001, 자유도: 6, p < 0.05

7. 재난관리단계별 변화추이

1991년 이후 재난관리 분야에서 재난관리 단계별로 분석해 보면, 전과정을 다루는 연구가 5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응과 복구 등의 사후 전략이 25%였고, 예방과 준비 등의 사전 전략이 18.2%였다. 많은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사전 전략보다는 사후 전략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관리 단계별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사전 전략(예방, 준비)	8	18.2
	사후 전략(대응, 복구)	11	25.0
	기타(전과정)	25	56.8
	합계	44	100.0

IV. 결론

본 논문은 우리나라 행정학 연구가 전개되어 온 과정에서 재난관리 분야의 연구경향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재난관리 연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학문적 발전을 위한 재난관리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그 동안의 재난관리 분야의 연구경향을 살펴본 결과, 첫째, 시대별 변화추이에서 2000년도 이후의 재난관리 분야 연구 논문이 전체의 81.8%를 차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재난의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인식과 시대적 배경 및 필요성에 의한 복합적인 영향으로서 지금이 재난관리의 학문적 발전의 가장 적기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재난관리 학

문의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자의 경우 단독 연구가 84.1%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재난관리 분야 연구자들이 한정되어 있어 인적 네트워크 확립이 미비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되며 재난관리 분야의 제학문적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기대된다 할 수 있다. 셋째, 연구 방법적인 면에 있어 사례연구가 47.7%, 문헌분석이 22.7%, 실증분석이 20.5%를 차지함으로써 사례연구에 치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넷째, 연구목적의 경우 정책대안의 제시 논문이 79.5%로 가장 많았으며, 이론검증의 경우 13.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학문적 기반 형성을 위해서는 이론의 정립 및 검증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다섯째, 재난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2001년 이후, 사회적 재난 및 사회적·인적·자연적 재난의 복합적인 연구가 각각 27.3%, 50%로써 매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사회적 테러에 대한 관심의 반영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재난관리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정책대상별로 살펴보았을 때 중앙·지방정부·민간부문 및 NGO 등의 통합적 재난관리 운영에 대한 연구가 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교차분석을 통하여 2001년 이후 보다 이러한 현상이 활발히 나타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일곱째, 재난관리단계별 변화추이에서는 사전전략(예방·준비), 사후전략(대응·복구) 전 과정에 있어서의 연구가 56.8%로 가장 많으며, 단계적 구분에 있어서는 사후전략에 더욱 치우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재난관리의 경우 미리 준비하여 재난을 막기보다는 일시적인 사후 처방적 특성이 강하며, 이는 학문적 경향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후관리에서 사전관리에 이르기까지 고른 학문적 연구가 필요한 전망이다.

참 고 문 헌

- [1] 이재은, “국가위기관리의 학술적 발전 방안에 관한 비교 연구- 미국,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2권, 제1호, p.54, 2006.
- [2] 이재은, “국가위기관리의 학문적 체계화의 의의와 필요성”,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권, 제1호, pp.20-32, 2005.
- [3] 이재은, “한국의 조직이론 연구경향 분석”,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2.
- [4] 김영평, 최병선, 소영진, 정익재, “한국인의 위험인지와 정책적 함의”, 한국행정학보, 제29권, 제3호, pp.935-954, 1995.
- [5] 양기근, “재난관리의 조직학습 사례연구: 세계무역센터 붕괴와 대구지하철 화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8권, 제6호, pp.47-70, 2004.
- [6] 이재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관리정책과 인위재난관리정책 비교연구: AHP기법을 이용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측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2호, pp.165-185, 2002.
- [7] 정준근, “사회적 위기에 대한 정책대응과정 분석: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29권, 제1호, pp.23-46, 1995.
- [8] 한세억, “지능적 행정조직의 탐색과 실천: 재난행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1호, pp.139-158, 2002.
- [9] 이재은, “위기관리정책 효과성 제고와 집행구조 접근법”, 한국정책학회보, 제1호, pp.51-77, 2000.
- [10] 김영수, “지방자치단체의 재난통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권, 제2호, pp.59-78, 1998.
- [11] 이동기, “도시 재난사고와 연상도”, 지방정부연구, 제9권, 제1호, pp.129-143, 2005.
- [12] 이창용,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한국형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지방정부연구, 제9권, 제2호, pp.203-225, 2005.
- [13] 전영평, “대구지하철 재난대응의 실패: 지방정치 위기의 관점”, 지방정부연구, 제8권, 제4호, pp.147-164, 2004.
- [14] 채경석,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국가간 비교: 바람직한 재난관리체계의 모색”, 지방정부연구, 제8권, 제4호, pp.129-145, 2004.
- [15] 박석희, 노화준, 안대승, “재난관리 행정에 대한

- 네트워크적 분석”, 행정논총, 제42권, 제1호, pp. 102-132, 2004.
- [16] 이재은, “재난관리시스템 개편과정 쟁점 분석 및 향후 방향”, 행정논총, 제42권, 제2호, pp.147-169, 2004.
- [17] 최병선, “원자력 안전규제와 행정체제”, 행정논총, 제33권, 제1호, pp.1-18, 1995.
- [18] 김용훈, “재난 관리를 둘러싼 행정부서간 경쟁”, 한국사회와행정연구, 제9권, 제2호, pp.15-28, 1998.
- [19] 모창환, “도시재난사고에 대한 책무성분석: 대구 시 지하철사고 사례분석”, 한국사회와행정연구, 제15권, 제2호, pp.369-393, 2004.
- [20] 이종열, 박광국, 조경호, 김옥일, “국가위기관리 통합적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 제2호, pp.347-367, 2004.
- [21] 권 욱, “소집단 재난관리 리더십 육성방안: 지역 주민 참여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권, 제1호, pp.117-128, 2005.
- [22] 권건주, “지방정부 재난관리조직의 효율화 방안: 삼척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권, 제2호, pp.79-92, 2005.
- [23] 김승권, “한국 재해구호의 현황 및 문제점과 발전방안”,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권, 제2호, pp.61-78, 2005.
- [24] 김용석, “우리나라의 전통적 안보위기관리 발전 방안”,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권, 제2호, pp.1-14, 2005.
- [25] 김형렬, “인식상대주의 관점에서 위기관리에 대한 방법론: 체계적, 상황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권, 제1호, pp.1-19, 2005.
- [26] 노진철, “현대 위험사회에서의 위험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권, 제1호, pp.33-48, 2005.
- [27] 박덕근, 김태훈, 오정림, 박정훈, “재난관리 체계에서의 군의 역할: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2권, 제1호, pp.1-13, 2006.
- [28] 박태순, “한국사회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과 갈등해법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제2권, 제2호, pp.87-96, 2006.
- [29] 박 현, 김민경, 김보국, 이동기, 서한진, “통합된 지역일원화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하여 가축 및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모델 제시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제2권, 제1호, pp.15-24, 2005.
- [30] 성기환, “시민, 기업, 정부간의 통합 재난구호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제2권, 제1호, pp.80-94, 2006.
- [31] 손영수, “의학분야에서의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논의”,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권, 제1호, pp.64-84, 2005.
- [32] 손영수, “저출산 국가위기의 대처방안”, 한국위기관리논집, 제2권, 제1호, pp.30-35, 2006.
- [33] 심재현, 안재찬, “하이브리드형 기술개발을 통한 재난관리 역량 강화 방안”, 한국위기관리논집, 제2권, 제1호, pp.45-53, 2006.
- [34] 양기근, “정부기능연계모델(BRMD)을 통한 특정 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 개선 방안”,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권, 제2호, pp.45-60, 2005.
- [35] 오재호, “위기관리와 기상학 발전방향”,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권, 제1호, pp.49-63, 2005.
- [36] 이윤주, “심리학에서의 재난위기관리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권, 제1호, pp.85-99, 2005.
- [37] 이은애, “재난복구 단계에서의 로컬 거버넌스의 유용성: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2권, 제2호, pp.74-86, 2006.
- [38] 이재은, “통합위기관리시스템의 효율화 방안”,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권, 제2호, pp.25-44, 2005.
- [39] 이재은, “국가위기관리의 학술적 발전 방향에 관한 비교 연구: 미국,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2권, 제1호, pp.54-79, 2006.
- [40] 이재은, “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의 국가 위기관리 법제화 방안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제2권, 제2호, pp.19-35, 2006.
- [41] 이호동, “일본의 재난관리 정책네트워크와 정책적 함의”, 한국위기관리논집, 제2권, 제2호, pp.52-61, 2006.
- [42] 조영갑, “전통적 안보위기와 위기관리학의 정립”,

-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권, 제1호, pp.100-116, 2005.
- [43] 조호대, “사이버 테러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제2권, 제1호, pp.14-29, 2006.
- [44] 차용진, “위험 수용성에 관한 연구: 위험인식의 사회심리학적 접근”, 한국위기관리논집, 제2권, 제1호, pp.36-44, 2006.
- [45] 최남희, “재난 피해자 사후 지원: 재난 피해자의 사회 복귀”, 한국위기관리논집, 제2권, 제2호, pp. 1-18, 2006.
- [46] 최병학, 이재현, “한,중,일 재난관리 국제협력체 제 구축방향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제2권, 제2호, pp.62-73, 2006.
- [47] 한동우, “우리나라 재해구호체계의 문제점과 해결과제: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민간 부문의 구호체계 네트워크”, 한국위기관리논집, 제2권, 제2호, pp.36-51, 2006.

저자 소개

안혜원(Hye-Won Ahn)

정회원



- 2004년 2월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2006년 2월 :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석사학위 졸업(행정학석사)
- 2006년 11월 ~ 현재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

- 2006년 11월 ~ 현재 :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관심분야> : 지방자치, 문화정책, 주민참여, 지역복지

류상일(Sang-Il Ryu)

정회원



- 2001년 2월 :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2003년 2월 :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 졸업(행정학석사)
- 2007년 08월 :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 졸업(행정학 박사)

- 2006년 11월 ~ 현재 :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선임연구원

<관심분야> : 행정조직·관리, 위기관리정책, 소방정책, 네트워크 이론